

의령군 수해 복구에 각계각층 성금·구호물품 기탁 이어져

경남=최근내 기자 | 승인 2025.07.29 13:40



BNK금융그룹 수해피해복구 성금 기탁.(사진=의령군)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의령군에 각계각층의 온정이 이어지고 있다.

BNK금융그룹은 29일 이번 폭우로 심각한 피해를 본 이재민을 돕기 위해 의령군에 1억원의 성금을 기탁하고 각종 구호 활동을 추진한다.



범한그룹 정영식 회장 수해피해복구 성금 기탁.(사진=의령군)

또한 범한그룹 정영식 회장이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의령지역 수해 이재민들을 위해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정영식 회장은 “갑작스러운 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주)태산종합건설 남경 대표이사 수해피해복구 성금 기탁.(사진=의령군)

(주)태산종합건설 남경 대표이사도 의령군 대의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수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뿐만 아니라 진주상업고등학교 동문회는 수해복구를 위한 성금 220만원을 기탁하며 피해 주민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의령군 수해피해복구 성금 기탁 모음.(사진=의령군)

청풍건설과 중원종합건축사사무소도 각각 100만원씩의 성금을 기탁해 복구 활동에 힘을 보탰다.

이 외에도 가락의령군종친회에서도 100만원의 성금을 전달하며 고향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는 피해 주민들을 위해 생필품 등으로 구성된 구호 물품 65세트를 전달했으며, 탐리사이클링은 무더운 날씨 속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선풍기 70대를 기탁했다.

오태완 의령군수는 “갑작스러운 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기탁된 성금과 물품은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경남=최근내 기자 gun8285@naver.com